

# 주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



## 보도자료

■ 보은군 기획감사실 공보팀(☎540-3037)

■ 2023년 10월 30일(월)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보은군,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 사업 ‘착착’

자료문의 경제전략과 산단관리팀장 이귀복(☎540-3281)

담당자 선태규(☎540-3282)

보은군은 4단계 충북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130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100억 원을 투입해 오는 2026년까지 탄부면 고승리와 사직리 일원 104만 m<sup>2</sup> 규모로 조성하는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인 ‘보은 제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통해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인근 삼승면 소재 보은일반산업단지와 연계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해 충북 남부권 산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산업단지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 산업단지 지정계획 고시, 12월 주민 열람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올 1월 산업단지계획수립용역을 착수해 현재 행정절차가 진행중이며, 2024년 토지 보상을 시작해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군은 창업을 준비하는 기업에 사업 공간 제공과 근로자 기숙사 문제 해결하기 위해 국비 105억 원이 포함된 총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입해 삼승면 보은일반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건립도 준비하고 있다.

이곳에는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남부권 혁신지원센터, 공장 14실, 연구사무실 12실, 기숙사 72실, 휴게실 등을 갖춰 2026년 준공할 예정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군내 산업단지의 분양률이 100%에 육박하고 있는 현 시점에 제3일반산업단지의 조기 착공과 우량기업 유치로 보은군 지역경제 기반을 육성해 지방 산업 발전과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앞으로 제3일반산업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통해 인구증가의 기틀을 마련해 군민이 행복한 도시형 농촌 보은군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보은군,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현장 견학 열려

자료문의 농정과 귀농귀촌팀장 김응철(☎540-3401)

담당자 안만중(☎540-3402)

보은군은 지난 28일부터 29일까지 양일간 군으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서울·경기 도시민 구성된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군내 귀농인들이 운영하는 체험시설과 농장 등을 견학했다고 3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역아카데미에 위탁 시행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에 관심있는 도시민들을 소규모 팀으로 구성해 지역별 귀농귀촌 운영 현황, 현장 견학 등 컨설팅을 도와주는 커뮤니티로 올해는 보은군을 비롯한 10 지자체에서 운영한다.

이번 현장 견학 일정은 먼저 28일 산외면 농촌체험휴양마을(두메마을)을 방문해 숙박시설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29일 속리산면에서 곤충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곤충 산업시설인 벅스팻을 방문해 곤충 사육시설을 견학하고, 시설하우스로 재배 운영 중인 △보은읍 핑거팜 딸기농장 △탄부면 애플수박, 토마토, 감귤농장을 견학하는 등 귀농귀촌을 위한 체험과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커뮤니티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보은군 농촌체험시설과 고부가가치 시설 견학을 통해 귀농귀촌에 필요한 간접 체험과 자료수집을 위한 좋은 기회가 됐다” 며 “이번에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귀농귀촌 계획을 철저히 세워 성공적으로 보은군에 정착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응철 군 귀농귀촌팀장은 “이번 귀농귀촌 준비 커뮤니티를 통해 도시민들이 원하는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며 “앞으로도 귀농귀촌을 원하는 도시민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지원책을 수립해 추진하겠다” 고 말했다.

## □보은군, 제1회 보은군민 건강걷기대회 성황리 마무리

자료문의 스초프산업과 체육팀장 윤상문(☎540-3381)

보은군은 지난 29일 보은읍 뱃들공원 일원에서 열린 ‘제1회 보은군민 건강걷기대회’ 가 2,0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걷기에 최적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군민 화합과 건강증진을 위해 보은군 체육회(회장 윤갑진) 주관으로 마련한 이번 대회는 식전 공연과 개회식 후 체조를 하며 몸을 풀고 보은읍 뱃들공원 시계탑에서 출발해, 풍취교와 학림자전거길을 지나 중동교를 반환점으로 돌아오는 5km 코스로 가족·연인·지인들과 함께 걸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걷기대회에 참여한 이숙희(여, 76세, 보은읍)씨는 “탁 트인 보청전변 자전거길을 걸으며 완연한 가을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었다” 며 “내년에도 건강관리를 잘해 꼭 걷기대회에 참가하고 싶다” 고 말했다.

윤갑진 체육회장은 “이번 대회가 군민들이 걷기를 통해 활기찬 기운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깊어가는

가을을 만끽할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었다” 고 말했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 이번 대회를 준비한 보은군체육회 윤갑진 회장님을 비롯해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 며 “보청천변 자전거길을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떨쳐버리고 잠시나마 마음에 휴식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